

ASEAN의 아·태지역 다자안보구상과 전망

배 금 찬*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ASEAN의 가능성과 한계 |
| II. 아·태지역 안보환경의 변화 | V. 향후전망 |
| III. ASEAN의 다자안보구상 | |

I. 머리말

현재 동남아지역은 1945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역동적이며 정치, 안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동남아국가들, 특히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의 경제는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제 3세계의 경제성장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1990년대에 들어서 냉전종식으로 인한 구소련으로부터의 위협소멸과 캄보디아 분쟁 해결 등 인도차이나 정세의 호전으로 역내정치 및 안보적 측면에서도 밝은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ASEAN 국가들은 국제정치 및 경제의 질서변화과정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최근 미국과 일본의 경기후퇴 여파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로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국가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경제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GATT체제의 동요와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한 난항 등 기존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와 점증하는 지역주의적 경향의 대두도 ASEAN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남아의 각국가들은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국내적 민주화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해야 할 어려운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다.¹⁾

한편 ASEAN 국가들은 탈냉전의 전환기적 지역질서 형성기를 맞이하여 역내안보환경의 새로운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냉전종식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1) 동남아국가들의 경제발전과 정치변화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는 Harold Crouch and James W. Morley, "The Dynamics of Political Change", James W. Morley, ed., *Driven by Growth: Political Change in the Asia-Pacific Region* (New York: M.E.Sharp, 1993), pp. 277-309를 참조할 것.

으로 인한 구소련으로부터의 위협소멸과 인도차이나 사회주의국가들과 ASEAN 국가들간의 대결구도의 해소 등은 분명히 지역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안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과거 냉전구조하에서 ASEAN이 지녔던 전략적 가치의 감소, 필리핀주둔 미군기지 철수에 따른 힘의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 이에 따른 중국 및 일본의 지역패권 추구가능성과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영유권 분쟁과 같은 잠재된 국지적 분쟁의 재연 소지 등은 동남아시아 안보의 새로운 불안정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ASEAN이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와 ASEAN 확대외상회의(PMC) 체제내에서의 다자간안보대화(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는 이와 같은 새로운 안보 및 경제적 도전에 대한 ASEAN의 대응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건대 월남전이 절정에 달했던 1967년 8월에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비공산국가들간의 경제문화협력을 위해 결성된 느슨한 형태의 반공기구로서 ASEAN은 그 동안 6개 회원국(1984년 브루나이 가입)들의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지만, 최근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기구발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답보상태를 계속해 온 것이 사실이다.²⁾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유럽과 북미지역 국가들이 각기 EC와 NAFTA 등 지역경제권을 형성할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소연방의 해체와 동서냉전종식으로 인한 인도차이나 정세의 변화 등 동남아시아의 안보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ASEAN 국가들도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구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ASEAN은 1993년 1월 1일부터 AFTA를 실현시키기 위한 단계적 관세인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함으로써 지역경제공동체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경제협의회(East Asian Economic Caucus: EAEC) 구상을 아·태각료회의(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틀안의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으로써 아·태지역 경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독자적 발언권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³⁾ 한편 안보적 측면에서도 ASEAN은 역내 미군사력의 존재를 적극 인정하고, 베트남,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국가들과의 새로운 우호

2) ASEAN이 창설된 이후 1980년대 말까지 ASEAN의 발전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글로는 Frank Frost, "Introduction: ASEAN since 1967-Origins, Evolution and Recent Development", Alison Broinowski, ed, *ASEAN into the 1990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p. 1-31을 참조할 것.

3) 말레이시아 마하티르수상이 제안한 EAEC 구상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ASEAN 국가 등 동아시아 국가들로만 구성된 아·태지역 경제협력 방안으로 그 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역외 국가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초래해 왔으나, 1993년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 PMC에서 EAEC를 APEC내의 협의체로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5, 1993), p. 11.

협력관계를 설정하는 동시에 주변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와의 새로운 관계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 지역안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ASEAN의 움직임은 PMC를 중심으로하는 역내 다자간 정치, 안보대화에 ASEAN이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ASEAN의 태도변화는 과거 안보문제에 관하여 지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부터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 아·태지역내 유일한 정치안보대화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ASEAN PMC의 행로는 향후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ASEAN의 움직임은 AFTA의 추진과 함께 동남아를 대표하는 지역협력기구로서 1990년대 ASEAN의 위상을 가늠하게 될 새로운 척도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아·태지역 다자안보구상과 관련한 ASEAN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향후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ASEAN의 역할을 조망해 보려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ASEAN 국가들의 안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아·태지역 안보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ASEAN이 추진하고 있는 다자안보구상의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의 주체로서 ASEAN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ASEAN의 역할을 전망해 보려고 한다.

II. 아·태지역 안보환경의 변화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냉전종식의 효과는 유럽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이 지역의 안보환경에 대단히 중요한 몇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 냉전기간중 동지역의 안보구도를 결정했던 미·소간 전략적 경쟁관계가 해소되었고 중·소 화해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냉전종식의 결과로 동북아에 있어서 한·소 및 한·중관계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중국-베트남관계 및 중국-인도네시아, 중국-말레이시아관계 등에서 보듯이 폭넓은 양자관계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ASEAN, 베트남-ASEAN, 미국-베트남, 중국-인도, 인도-미국관계증진 등 동지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냉전종식과 함께 동서이념갈등의 종식으로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보다 본격적으로 경제발전과 성장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자국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자본, 기술, 시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과거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한국과 중국, 한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과

대만관계에 있어서 긴장해소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에는 아직도 과거 냉전의 유산들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상태이다. 우선 동북아에 있어서 남북한관계는 부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상호대립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러시아간 북방영토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동남아에 있어서도 지난 15년간 끌어온 캄보디아 분쟁이 1993년 5월의 총선과 연립정부의 구성으로 일단 종식되었다고는 하지만, 각 정치세력간 내분과 갈등이 재현될 소지를 안고 있어 아직도 그 전도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주변 동남아제국간의 스프라틀리군도를 중심으로 한 남지나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⁴⁾

그러나 아·태지역안보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불안정 요인은 소련방의 붕괴로 인한 불확실성과 냉전종식에 따른 동지역에서의 미군사력 감축조짐으로 야기될 수 있는 힘의 공백상태이다.⁵⁾ 이러한 힘의 공백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등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상호불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강대국들간의 패권추구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동지역 안보의 최대 불확실성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⁶⁾

이와 관련하여 아·태지역 전체가 하나의 군비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사실도 대단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⁷⁾ 냉전종식과 함께 전세계적인 무기거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은 최근 중동지역을 제치고 전세계 무기수출량의 1/3을 흡수하는 최대의 재래식 무기 판매시장이 되었으며, 이들 국가들의 병기현대화로 동지역의 군사력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년에 들어 중국과 일본의 두드러진 군비증강은 아·태지역의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대만, 한국 등 동북아 주변국가들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여타 동남아 주변국

4) 스프라틀리군도와 관련한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에 대하여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13, 1992), pp. 14-20을 참조.

5)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Leszek Buszynski, "ASEAN Security Dilemmas", *Survival* (Winter, 1992-93), Vol. 34, No. 4, pp. 90-107과 Hari Singh, "Prospects for Regional Stability in Southeast Asia in the Post-Cold War Era",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93), Vol. 22, No. 2, pp. 279-300을 참조할 것.

6) 특히 향후 중국과 일본의 지역패권경쟁 가능성을 분석한 글로는 Gerald Segal, "The Coming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World Policy Journal* (Summer, 1993), Vol. 10, No. 2, pp. 27-32.

7) 아태지역의 군비경쟁 양상 및 원인 그리고 문제점들을 분석한 글로는 Gerald Segal, "Managing New Arms Race in the Asia/Pacific", *The Washington Quarterly* (Summer, 1992), Vol. 15, No. 3, pp. 83-101 과 Michael T. Klare, "The Next Great Arms Race", *Foreign Affairs* (Summer, 1993), Vol. 72, No. 3, pp. 136-152 등이 있다.

들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포괄적 안보개념(comprehensive security)에 입각한 아·태지역의 비군사적 안보 의제들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즉 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 환경보호, 불법이민 및 난민문제 그리고 마약, 테러, 밀수 등 초국가적 범죄행위방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적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점차로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냉전종식에 따른 아·태지역 안보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과거 이 지역안보의 근간으로 작동되어 왔던 미국과 아·태지역 동맹국들간의 양자안보협력체제가 과연 탈냉전시대에도 타당한 것인가하는 의문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또는 공동의 안보협력구상들이 제기되었다.⁸⁾ 이러한 다자안보구상들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아·태지역국가들간의 상호불신감 및 정치적 목적의식의 미약, 주요국가간 대화채널 및 공동안보의제(common security agenda)의 부재 등으로 애초에는 별다른 호응을 얻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호주와 캐나다 등이 제시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형태의 다자안보구상이나 소련이 동지역의 미해군력 감축을 겨냥하여 제안한 지역안보구상 등은 이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고수하려는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⁹⁾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점차로 수렴되어 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지역의 주요국가간 정치적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지역분쟁의 해결 및 방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상호신뢰구축 등 주요안보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어느 일방의 노력보다는 다자안보협력 메카니즘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안들이 현실성을 가지고 검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ASEAN 등 동지역의 주요국가들이 모두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8) 1980년대 중반이후 소련, 한국, 몽고, 캐나다, 호주 등이 제안한 아·태지역의 다자안보구상에 대한 고찰로는 Andrew Mack,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Summer, 1992), Vol. 11, No. 2, pp. 21-34를 참조.

9) *Ibid.*, p. 22.

III. ASEAN의 다자안보구상

ASEAN은 최근까지도 지역안보에 관한 다자적 접근방식에 소극적, 유보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는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아·태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하여, 이 지역에서 미국이 계속하여 지역안정역할을 수행해 줄것을 원하는 ASEAN 국가들이 아·태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논의가 이러한 미국의 지역안정 임무수행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ASEAN 국가들과 안보협력관계에 있는 미국이 기존의 양자적 안보협력틀을 바꾸는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¹⁰⁾

그러나 ASEAN이 다자안보협력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는 ASEAN이 1971년에 말레이시아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동남아시아를 어떠한 형태의 외부세력에 의한 간섭도 배제하겠다는 평화, 자유와 중립지대(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로 만들자는 공식선언을 채택한 이래 회원국들간의 안보협력문제에 대한 내부적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¹¹⁾ ZOPFAN에 대해 기본적으로 선언적 측면에서 인식을 같이 했던 회원국들도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왔다.

즉 태국과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방위협력관계 유지가 중립화방안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보장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반면, 싱가포르 지역내 강대국간 힘의 균형이 안정을 보장하는 현실적 방법이라고 보고 있었다. 한편 ASEAN의 지도적 위치를 열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강대국들의 보장을 전제로 한 중립화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고 국가적 탄력성(national resilience)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적 탄력성(regional resilience)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자신들의 국가전략에 더욱 집착하고 있었다.¹²⁾

그러나 최근 들어 ASEAN은 다자안보협력문제에 대한 태도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ASEAN의 태도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진 필리핀내 미군기지철수, 소련방의 붕괴와 중국의 외교공세, 불투명한 미·일관계전망, 그리고 동지역에서 미군감축에 따른 힘의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추세, 중국의 해공군력증강

10) ASEAN국가들은 동남아에서 미국의 지역안보역할이 동북아에서 만큼 결정적이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의 존재를 동남아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Chandran Jeshuran, 필자와의 인터뷰 (1993년 9월 20일).

11) ZOPFAN의 기원, 개념변화, 적실성 등을 현실적 시각에서 비판한 분석으로는 Muthiah Alagappa, "Regional Arrangements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 Southeast Asia: Going beyond ZOPFA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March, 1991), Vol. 12, No. 4, pp. 269-305를 참조할 것.

12) 윤진표, "아세안의 어제와 오늘", 『국제정세』(1991년 5월), pp. 85-86.

과 남지나해역에 대한 영향력 팽창기도 등 매우 유동적인 지역안보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즉 ASEAN 국가들은 변화하는 지역안보환경에 직면하여 만일 ASEAN이 다자안보구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오히려 보다 강력한 외부세력에 의한 새로운 안보틀속에 편입되어 피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ASEAN 국가들은 새로운 다자안보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한 것이다.¹³⁾

이러한 배경에서 1992년 1월 27-28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담은 지역협력기구로서 ASEAN의 존재의의를 재정립하고, 동남아국가들의 정치적 결속 및 상호경제협력의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주요성과는 크게 지역경제통합과 안보협력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을 새로이 설정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회담을 통하여 ASEAN이 향후 15년 이내 2008년까지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창설키로 합의한 것 이외에, 특히 지역안보문제에 관한 역외국가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기존의 ASEAN 확대외상회의(ASEAN PMC)를 활용키로 결정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¹⁴⁾ 이로써 ASEAN은 지금까지 타부시해 왔던 지역안보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ASEAN PMC는 아·태지역의 유일한 안보대화(security dialogue)의 장이 된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ASEAN PMC를 통해 역외대화상대국들(dialogue partners)과 정치, 안보문제에 관한 협의를 촉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결정함에 따라, 1992년 7월 23-26일간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PMC에서는 처음으로 안보이슈가 공식의제로 채택되어 미국, 일본, EC,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등 7개 대화상대국들과 지역안보전반 및 캄보디아분쟁, 인도차이나난민, 남지나해 영유권, 미얀마사태 등 역내안보문제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PMC 직전에 열린 ASEAN 외상회의(AMM)에서는 초청국(guest)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안보에 관한 대화도 이루어졌다.¹⁵⁾ 이밖에도 동회의기간중 베트남과 라오스의 동남아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 가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두나라는 ASEAN의 옵서버국 자격을 얻게 되었다.¹⁶⁾

13) Chandran Jeshuran, "ASEAN as a Source of Security in the Asian Pacific Region: Some Emerging Trends", T. B. Millar and James Walter, eds., *Asian-Pacific Security After the Cold War* (London: Allen & Unwin, 1993), p. 91.

14) AFTA의 목적, 기본개념 그리고 추진일정에 관하여 Pearl Imada and Seiji Naya, *AFTA: The Way Ahea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2)을 참조할 것.

15) 중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1991년도부터 ASEAN PMC의 게스트로 초청되었다.

16) 일명 발리조약으로 불리는 이 조약은 ASEAN의 정회원국이 되기 위한 전단계적 조치로서 베트남

특히 1992년 PMC에서 ASEAN은 최근 새로운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스프라틀리군도 (Spratly Islands: 남사군도라고도 함) 문제와 동남아시아에서의 미군사력 주둔문제에 대해 전례없이 대담한 공동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안보문제에 관한 과거의 소극적 태도를 일실했다.¹⁷⁾ 주지하다시피 스프라틀리군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무력사용 가능성은 역내안보의 최대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ASEAN 국가중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스프라틀리군도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ASEAN은 문제해결을 위한 무력사용의 반대, 동해역에 대한 항해 및 교통의 안전보장, 자원의 공동개발, 이와 관련한 환경 및 안보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이 문제가 ASEAN의 주된 관심사항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주요당사자인 베트남도 이러한 ASEAN의 입장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영유권문제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과시했다.

한편 ASEAN은 냉전종식 이후 동지역에서 힘의 공백이 초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주둔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ASEAN의 입장은 과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비동맹국가로서 미군의 주둔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서, ASEAN 전체가 최초로 동아시아 전역에 대한 미군사력의 존재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주둔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도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ASEAN의 새로운 노력을 지지하며 동남아시아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92년도 ASEAN PMC에서 논의된 또 다른 주요이슈는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문제였다. 이 회의에서 ASEAN 6개국과 한국을 포함한 7개 대화상대국 모두가 지역안보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화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대부분의 참석국들은 정치, 안보문제에 대한 의견교환내지 공동입장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 이상의 본격적인 지역안보협력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 유보적 태도를 견지했다. 호주와 캐나다가 신뢰구축 조치를 목표로 한 지역안보협력을 주장하였고 일본이 소지역 중심의 분쟁해결을 위한 안보협력 필요성을 주장한 것 이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뢰구축, 군비축소, 분쟁해결 등 다자안보협의를 넘어서는 집단안전보장기구 또는 다자방위체제에 관해 언급하거나 구체적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1992년 ASEAN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1993년 5월 20-21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남과 라오스는 앞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ASEAN 국가들과 현격한 차이를 줄어나갈 경우 정회원국 이 될 수 있다. 한편 ASEAN은 궁극적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까지를 ASEAN 정회원국 후보로 상정하고 있다.

17)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6, 1992), pp. 8-9.

ASEAN PMC-SOM은 아·태지역의 정치 및 안보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실무회의였다. 이 회의는 아·태지역 최초의 정부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공식회의로서 비강대세력인 ASEAN의 주도에 의한 안보협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ASEAN 6개국과 7개 대화상대국들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는 캄보디아분쟁, 남지나해 영유권, 미얀마 인권문제 등 동남아 관련사항과 북한의 핵문제 및 중국의 군비증강 등 동북아 안보문제들도 함께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성의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이 회의가 비록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이 회의의 주요성과는 캐나다와 호주 등이 강조했듯이 핵확산 금지조약(NPT) 연장 등을 통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UN의 예방외교 등 평화유지를 통한 분쟁예방, 재래식 무기등록 및 무기판매감시와 같은 신뢰구축조치 등 보다 구체적인 안보협력방안들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역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¹⁸⁾

이밖에도 동회의는 현행 ASEAN PMC체제의 개선방안도 검토되었다. 참가형식은 계속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중국 및 러시아의 PMC참여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향후 ASEAN PMC를 정치, 안보이슈를 다루기 위한 지역안보협의체제로 전환할 것 등이 논의되었다. 또 1994년도 PMC-SOM에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를 초청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주변강대국과 베트남 등 주요관련국들의 PMC 참가문제는 ASEAN 회원국들과 대화상대국들이 보다 현실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일본만이 중국 및 러시아의 참가문제에 신중한 유보자세를 보였던 점이 주목된다 하겠다.

이 회의를 통하여 ASEAN 국가들은 PMC-SOM을 통해 동남아지역 및 여타 일반적인 국제안보협력 논의에는 적극성을 보였으나,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유보적 태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문제 논의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아·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보협회의에 있어서 비강대세력인 ASEAN이 갖는 한계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금년 7월 25-26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993년도 ASEAN PMC는 분명히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보다 진일보된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성공했다.¹⁹⁾ 이 회의의 주요 성과는 내년도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인 1994년도 ASEAN PMC를 계기로 현재 ASEAN 6개

18)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3, 1993), p. 18.

19)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5, 1993), p. 10.

국과 7개 대화상대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파푸아 뉴기니아 등 5개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범아·태지역 18개국 외무장관간 아세안 지역협의회(ASEAN Regional Forum: ARF)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점이다.²⁰⁾ 이 회의에서 ARF를 연례화하는 문제와 어떠한 안보 의제들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었으나, 당분간 18개국 외무장관간 회담으로 연례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IV. ASEAN의 가능성과 한계

ASEAN은 지난 1967년에 창설된 이래 그 자체가 갖는 여러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제 3세계의 가장 성공적인 지역협력기구중에 하나로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과거 26년간 ASEAN이 다양한 지역적 불안정 요인들을 안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간과될 수 없는 사실이다.²¹⁾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 발생한 캄보디아 내전 및 인도차이나난민 문제 등에 대해 ASEAN 국가들이 취했던 외교적 공동대응은 상당히 성공적인 지역협력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²²⁾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도 ASEAN국가들은 캄보디아분쟁, 스프라틀리군도문제, 미얀마사태 등 현안문제를 ASEAN 자체의 협력틀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과거 ASEAN이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과 관련한 역외국가들의 새로운 제안들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극도의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것도 바로 이러한 ASEAN체제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안보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ASEAN의 태도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ASEAN은 그 초기단계에 있어서 APEC의 공식기구화에도 대단히 소극적이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²³⁾ 또 다자안보협력과 관련하여 ASEAN은 자체적으로 이미 부분적인 신뢰구축의 메카니즘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992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ASEAN 국가들이 기존 PMC의 활성화를 통한 역외국가들과의 정치, 안보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태지역의 새로운 다자안보협력구상에 대한 ASEAN의

20) 파푸아 뉴기니아는 1976년 이후 ASEAN의 옵서버 국가이다.

21) Chandran Jeshurun, *op. cit.*, p. 85-89.

22) 이와 관련하여 Michael Leifer, *ASEAN and the Security of South-East Asia* (London: Routledge, 1989), chapter 4를 참조할 것.

23) 물론 현재는 ASEAN 국가들이 ASEAN 자체의 경제구조적 취약성과 기술개발수준의 저조 등 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태경제협력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ASEAN 중심의 APEC 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1989년 캔버라회의에서 APEC가 처음 공식 출범할 당시만 해도 ASEAN은 상당히 유보적 자세를 취했으며, 오히려 호주, 한국, 캐나다 등이 보다 적극적이었다.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ASEAN은 아·태지역의 다자안보문제를 자신의 주도하에 ASEAN의 틀 안에서 해결해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ASEAN이 외부의 다자안보구상에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강대세력에 의한 식민통치를 경험한 대부분의 동남아국가들에게 있어서 제 3세계 비동맹운동의 정서가 폭넓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ASEAN의 주요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1970년대 이래 제 3세계 비동맹운동의 적극적인 지지세력으로서 최근 비동맹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상호경쟁하는 관계에 있으며, 특히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이 제안한 EAEC 구상은 아·태지역 경제질서 구축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비아시아 외부세력의 지배적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²⁴⁾

이보다 더욱 직접적인 이유는 만일 아·태지역의 새로운 다자안보협력체제가 구성될 경우, 대내외적으로 취약한 정치, 경제, 군사적 기반을 가진 ASEAN 국가들은 이러한 협력체가 일본과 중국 등 외부강대세력들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과 약소국인 자신들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따라서 ASEAN은 개별적으로 취약한 각국의 대외교섭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써 자신들이 주도하는 ASEAN을 중심으로 공동보조를 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태지역의 다자안보구상에 있어서 ASEAN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동남아지역의 다양한 지역안보문제의 해결에 일차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ASEAN은 기본적으로 동남아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를 포함하는 아·태지역 전체의 안보의제를 다루기는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²⁶⁾

또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 구성된 ASEAN 국가들의 "위협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threat)"의 차이나 전략적 관점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²⁷⁾ 즉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동남아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위협세력으로 인식해 온 반면, 태국과 싱가포르를 과거 냉전시대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의 지역팽창정책을 우려해 왔으며, 필리핀은 다른 ASEAN 국가들과는 달리 신인민군(NPA)

24) Hisayoshi Ina, "A New Multilateral Approach for the Pacific: Beyond the Bilateral Security Network" (Washington D.C.: The Johns Hopkins Foreign Policy Institute Papers, 1993), p. 24.

25) *Ibid.*, p. 26.

26) ASEAN국가들은 아·태지역 다자안보논의가 항상 동북아지역의 관심사로 압도되는 경향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동북아 다자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또 다른 포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Mohammed Jawhar bin Hassan, 필자와의 인터뷰 (1993년 9월 23일).

27) Hisayoshi, *op. cit.*, p. 24.

과 같은 내부적 안보도전에 중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ASEAN은 공통의 위협인식을 결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ASEAN 국가들의 역내 양자안보협력관계와 역외 동맹관계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지역안보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최근 다자안보논의에 있어서 “안보”라는 개념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상이한 해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과 특히 강대국간의 힘의 균형을 강조하는 싱가포르같은 나라는 안보협력에 신뢰구축 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s)를 포함한 군사적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외부세력에 대해 강력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ASEAN의 지도적 위치를 열망하는 인도네시아같은 나라는 안보를 단순히 협외의 군사적 개념이 아닌 광의의 정치, 경제적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⁸⁾ 따라서 ASEAN은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의견 일치를 도출해 내는데 내부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ASEAN의 한계성은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구상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태도이다. 현재 ASEAN PMC를 중심으로 한 안보대화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국가는 호주와 일본정도이다. 1980년대 이후 아·태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기 시작한 호주는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자국의 외교적 입지를 넓혀 나간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아·태지역 다자안보구상에 적극성을 보여왔다.²⁹⁾ 특히 1991년 나카야마 일본외상이 ASEAN PMC를 아·태지역의 정치, 안보대화의 장으로 활용하자고 처음 제안한 것은 이미 경제적으로 동남아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모색하려는 전략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³⁰⁾

반면 한국은 ASEAN PMC를 북한의 핵문제 등 한반도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안보이슈들을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안보문제를 따로 협의할 수

28)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3, 1993), p. 18.

29) Gareth Evans and Bruce Grant, *Australia's Foreign Relations: In the World of 1990s* (Melbourne: Melbourne University Press, 1991), pp. 12-14.

30)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Lee Poh Ping, "ASEAN and the Japanese Role in Southeast Asia", Alison Broinowski, ed., *ASEAN into the 1990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p. 162-183, 일본의 ASEAN에 대한 대외정책 분석으로는 Suelo Sudo, *The Fukuda Doctrine and ASEAN*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2),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 역할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일본의 아·태정책을 전망한 글로는 Richard P. Cronin,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Prospects for the Asia-Pacific Century: Three Scenarios for the Future*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2)를 참조할 것.

있는 또 다른 별도의 소지역별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상하고 있다.³¹⁾ 또 중국의 태도도 아직 분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비록 중국정부가 최근 ASEAN 국가들에 대하여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ASEAN PMC를 통한 다자안보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는 있지만, 과거 외교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 했던 ASEAN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중국이 얼마나 이 문제에 적극성을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과거 구소련체제하에서 아·태지역 진출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왔던 러시아도 최근 자신의 어려운 국내정치, 경제문제 해결에 일차적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역시 이 문제는 이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외부적 변수는 역시 이 지역안보에 있어서 균형자(balancer)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방향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최근 ASEAN PMC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안보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도 미국의 클린턴행정부가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을 그들의 중장기적 외교정책목표로 설정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³²⁾ 과거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아·태지역의 다자안보구상에 반대했던 당시에도 미국은 유럽에서와는 달리 동남아에서 ASEAN의 다자안보논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요구하지 않는 신중성을 보여왔다. 또 현재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체제 구현을 중장기적 외교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클린턴행정부도 아직까지는 ASEAN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대체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ASEAN PMC를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구상의 성사여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태도변화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V. 향후전망

현재 아·태지역에서 ASEAN PMC이외에 어떠한 공식적인 다자안보협력의 메카니즘도 부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당분간 아·태지역의 정부간 다자안보협의는 기존의 ASEAN PMC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향후 아·태지역

31)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려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2) 지난 3월 31일 미국무성 아·태담당 차관보로 내정된 윈스턴 로드의 의회인준청문회에서 로드차관보는 향후 미국의 10대 아·태정책목표를 밝히면서 과거 미행정부가 거부해 왔던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을 미외교의 장기적 목표임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15, 1993), pp. 10-11.

의 다자안보협력에 가장 핵심적 변화변수는 미국의 정책방향일 것이다. 또 여타 비ASEAN 국가들의 태도도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과 관련하여 현재 미국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옵션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방향에서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ASEAN PMC를 활용하는 방안과 둘째, APEC에 다자안보협력기능을 추가하는 방안, 그리고 셋째, 새로운 안보협력체를 창설하는 방안 등이다.

첫번째 방안과 관련하여 미국은 기본적으로 ASEAN PMC가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 전체의 안보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과 함께, 특히 현상위에서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어 보다 제도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경우 북한 등 일부국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³³⁾ 또 두번째 APEC을 안보기구화하는 방안은 이미 미국 클린턴대통령이 APEC 국가들의 정상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고 1993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 5차회의에서도 그 가능성이 타진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APEC가 아직도 초기 발전단계에 불과한 정부간 국제경제협력기구임을 감안할 때 그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옵션은 미국이 보다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우선 학계 등 민간차원에서 먼저 검토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정부간 협의체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으로 보다 많은 시일이 요구되는 사안이다.³⁴⁾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미행정부가 어떠한 방안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 확보해 나가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과중한 안보부담을 덜 수 있는 중요한 잇점이 있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안보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볼때 당장 두번째와 세번째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먼저 APEC을 안보기구화하는 방안은 ASEAN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³⁵⁾ APEC의 초기 기구화과정에서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ASEAN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APEC을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미국 중심의 메카니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APEC이 안보기구화할 경우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33) 한편 중국도 현재 ASEAN PMC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안보대화에는 일단 긍정적이나, 만일 이러한 움직임이 공식기구화하여 중국의 대외군사안보정책에 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된다면 이에 부정적,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34)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아·태지역 각국가들의 민간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아·태지역 안보협력회(CSCAP)를 구성하여 학자들간 의견교환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35) Mohamed Jawhar bin Hassan, 필자와의 인터뷰 (1993년 9월 23일).

PMC 중심의 다자안보노력을 회색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⁶⁾ 또 미국으로서도 ASEAN국가들이 빠진 아·태지역 안보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방안은 그야말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안으로서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간의 민감한 군사안보문제에 대한 의견조정이 커다란 난제로 남아있다.

결국 미국은 당분간 ASEAN PMC 중심의 다자안보논의에 참여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³⁷⁾ 또 내년부터 개최되는 ASEAN 지역협의회(ARF)에 참석하게 될 중국과 러시아도 대체적으로 관망적 자세를 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남아시아에 대해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호주는 이미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동북아에서의 또 다른 안보포럼을 구상하는 한국도 범아·태지역의 다자안보논의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아·태지역의 다자안보대화는 ASEAN PMC를 중심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라 하겠다.

이러한 ASEAN 중심의 다자안보협력은 ASEAN 자체가 가지는 여러가지 한계성과 아직도 초기 태동단계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ASEAN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남아 지역안보를 포함한 아·태지역 전체의 안보문제를 다루는 최초의 유일한 대화의 장이 자신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개최되는 ARF는 기존의 7개 대화상대국 이외에 실질적으로 아·태지역 안보논의에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명실공히 범아·태지역 다자안보포럼으로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또한 현단계에서 회의의 의제, 내용, 형식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으나, 아·태지역의 다자안보논의를 주도하려는 아세안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중대한 진전임에 틀림없는 것이며 대외적으로 ASEAN의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³⁸⁾

돌이켜 보면 과거 냉전기간중 ASEAN은 오히려 자신들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에 휘말리는 것이 두려워 어떠한 노력도 구체화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냉전종식과 아·태지역의

36) 이와 함께 ASEAN국가들은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로만 구성된 EAEC를 전제하기 위하여 최근 APEC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함께 APEC의 기능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Mohamed Ariff, 필자와의 인터뷰 (1993년 9월 23일).

37) 이와 관련하여 1993년 ASEAN PMC에서 미국은 중국의 대외무기수출 통제문제와 북한의 핵문제 등을 집중 거론함으로써 PMC 틀안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5, 1993), p. 11.

38) 이러한 점에서 볼때 1989년 APEC이 처음 공식화되었을때 아무도 현재와 같은 기구적 발전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는 역설적으로 ASEAN 국가들에게 지역안보 역할증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ASEAN은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내부적 의견절충, 결속강화, 공동보조 등에 있어서 극복해야 될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안고 있기는 하나, ASEAN은 과거 26년간 동남아국가들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 같이 앞으로도 동남아지역의 정치, 안보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중추적 지역협력체로서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